

“부처님오신날 맞춰 전국 모연활동 전개”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조계종이 구세군처럼 전국적인 대규모 모연활동을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으로부터 태극 대홍수 구호기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자리에서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에게 이 같은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지난 12월17일 서울 인사동 탁발행사를 통해 태극 대홍수 구호기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연말에 구세군이 모연하는 것처럼 불교계도 부처님오신날 한 달 전쯤에 전국적으로 모연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선묵스님은 “108산사순례기도회를 다녀오는 길에 인사동에서 포대화상을 모시고 가리 탁발행사를 가셨는데 요즘도가 컸다”면서 “다른 사찰에서도 이처럼 포대화상을 모시고 자비나눔기금을 모연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산 육군훈련소 병단 견원불사와 승려노후복지사업에 대한 회의를 이어졌다. 조계종 가사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통일가사사업의 수익금을 모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금을 전달한 가사원 운영국장 소류스님에게 “다들 고생했고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아름다운동행에 검토 지시

108산사기도회 탁발 귀감 가사원·관운사도 기금 전달

또한 포교원 신도팀과 총무원 사찰교무지도 총무성과평교로 수성한 상급 일부인 100만원씩을 3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회신했다. 성주 관운사 주지 지산스님도 지난 12월26일 육군훈련소 병단과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사찰에 밀려다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은 관운사 주지 지산스님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추진하다 지자체의 만류로 불사가 중단되자 그동안 모연한 기금을 군법당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대신 사용하게 된 것이다. 박인택 기자



“자상·쇄신결사는 작은 변화부터” 불기 2556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및 유관기관 사무처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총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상과 쇄신 결사의 출발점이 어찌된 적다고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갖고 새롭게 결집해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buddho.com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존 국가지원 근거 마련됐다

‘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사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 조항이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12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찰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사찰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분규사찰에 대한 재산 관리인 임명 조항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의 정보를 수집·연구

‘관리’ 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및 ‘관리’할 경우에도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전통사찰의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해 토지의 명칭을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전사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칫 전사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개정된 이번 전사법 개정활동은 조계종 총무원이 총력을 기울이며 여·야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분규사찰 관리인 임명 및

재산목록 비치 조항 삭제

불교 자주성 확립 ‘의미’

·활용하기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조항도 불교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 삭제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는데 앞장설 것을 의무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를 통해 불교라는 특정종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혜라는 일부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통사찰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 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조사’, ‘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과

박인택 기자 parkin@buddho.com

바로잡습니다

- 지난 2781호 B1면 신춘문예 당선시조 ‘암자에 홀로 앉아’에서 ‘안으로 다져놓은’을 ‘안으로 다져놓은’으로, ‘빈 골짜기’를 ‘빈 골짜기’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 지난 2781호 A3면 ‘산사에서 온 편지’의 ‘그중에 한분인 A대 교수’를 ‘그 중의 한분이 A대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특보 단장 원담스님 임명

국정급도 일부 인사 재우·현답 사서·광전 전통문화원 탄고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선임 단장에 전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사지)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월30일 특별보좌관 단장에 원담스님을 임명하는 등 특별보좌관의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임명받은 특별보좌관 스님들은 ‘정무담당’ 정념스님을 비롯해 ‘국제담당’ 도원스님, ‘종책담당’ 대오스님, 진화스님, 덕문스님, ‘수익사업총괄담당’ 각운스님이다. 한편 미디어홍보담당 정석스님, 사회담당 월곡스님, 전산담당 정병스님, 신도시도담당 하운스님, 문화콘텐츠담당 법해스님과 박기원 종책특보는 유임됐다. 이로써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은 총 13명으로 꾸러졌다.



장급 교역직 총무원 인사도 시행됐다. 총무원 재부국장에 현담스님, 사자국장에 광전스님, 전통문화원 사무국장에 탄고스님이 기용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그동안 특별보좌관을 맡아오던 정념스님이 흥천사 주지를 맡게 되면서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해 몇 차례 사표를 제출, 부득이하게 정무담당으로 임명하게 됐다”고 특별단장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담스님이 기획실장을 경험하는 등 중단 현안에 대해 잘 알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판단한다’며 “종책특보들이 형식이 아닌 전문적 내용을 갖고 활동해 종단 발전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섭 기자 lue@buddho.com

농협중앙회 저소득층 한마음선원 국제구호 총회의원 7명 NGO 지원

세밀새해를 맞아 저소득 가정 및 해외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이 잇따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에 10kg 쌀 45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과 김관남 농협중앙회 총로지정장, 오금남 종교구의 회 의장이 참석해 간단한 기념식을 갖고 직접 쌀을 나눠줬다. 쌀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성남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서울 종로구 사직동, 무학동, 교남동 주민센터 등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된다.

안양 한마음선원도 제3세계 국제

개발구호사업에 씨달라며 더프라이스에 1억원을 기부했다. 한마음선원(주지 해원스님)이 성금은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 ‘한마음음악제’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성금은 미얀마 교육과 동티모르 ‘워터로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총회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7명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들도 12월26일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13개 불교계 NGO의 협의체인 ‘불교시민사회네트

한글염불지도교수 모집

행자수계교육 및 승가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글염불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음스님)이 한글염불의례교육을 맡을 교수사를 모집한다. 교육원은 최근 “승가교육기관에서 한글염불의례교육을 담당할 10명 내외의 지도교수 스님을 오는 13일까지 모집, 서

트워크’ 소속 활동가를 초청해 지역공약을 함께하며 불교NGO 활성화를 위해 300만원을 후원했다. NGO간의 협력사업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모임에서는 중앙종회 활동비 등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전달했다. 중앙총회의원 지홍스님은 “도을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다”며 “불교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buddho.com

류 및 염불심수 심사를 거쳐 1월 하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사에게는 염불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교수비 및 활동비가 지원되며, 교육원 연수에 참가했을 경우 해당년도 종단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 자격은 중덕, 정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 스님이다. (www.buddhism.or.kr) 어현경 기자 eon@buddho.com

2012년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吾輩一日持戒以死 不願百年破戒而生”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백년 동안 파계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佛之宗家 國之大利” 영축총림 통도사는 신라시대 대국통 자장율사께서 창건, 이곳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많은 후학들을 두드려하여 계도하는 계율근본도량입니다. 금번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2012학년도 전문과정 및 연구과정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계방의 비구스님들의 많은 방부를 바랍니다.

■ 입방 및 지원자격

- 전문과정(2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12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 연구과정(3년):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모집인원 전문과정 0명, 연구과정 0명

■ 모집일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2. 2. 6.(수) 15:00
-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접수가능)
- 전형 및 면접합격일: 2012. 2. 7.(목) 1:00 오후 1시
- 결과발표: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통도사 위문암)
-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방신청서 및 수행이력서(본원소정양식)
- 승적증명서(승려증서본)
- 졸업증명서
- 인사 및 교육기관장 추천서
- 건국전담서(종합합원용)
- 건강진단서본
- 자기소개서
- 사진(3×4) 3매

■ 문의처

053382-8348(율학승가대학원)
053382-7182(통도사 총무소)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圓山 道明
율주 中山 慧南 율학승가대학원장 又雪 德文

